

메이지 · 다이쇼 작품의 てくれ · てくださ이의 표현 양상

양 정 순
(경희대학교)

1. 머리말

‘의뢰(依頼)’란 상대에게 어떤 동작의 실행을 요구·부탁하는 표현¹⁾으로, 이 표현에는 직접 상대에게 동작을 의뢰하는 직접의뢰표현과 자신의 실정을 서술하며 의뢰하는 간접의뢰 표현이 있다. 의뢰 표현으로서 제시되는 문형에는 ‘してくれ’ ‘してください’ ‘してちょうだい’ ‘てもらおう’ ‘お願いできる’ ‘てもよろしいですか’ ‘てほしい’ ‘てもらいたい’ ‘ていただきたい’ ‘てもらえませんか’ ‘と助かる’ 등의 ‘수수형(授受型)’, ‘가능형(可能型)’, ‘허가형(許可型)’, 회피형(回避型), ‘원망형(願望型)’ 등이 있다²⁾. 그 가운데 ‘て+수수동사’를 이용한 의뢰표현은 시점 및 상하관계에 제약

1) 佐藤里美, 「してくれ・してください」『ことばの科学5』, むぎ書房, 1992, pp109-174

佐藤里美는 ‘의뢰문’이란 술어가 ‘してくれ’ ‘してください’ ‘してちょうだい’ ‘しておくれ’ 등의 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상대에게 행동을 요구, 부탁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 清水勇吉, 「依頼表現に見るポライトネス-性差のかかわりを中心に-」, 『徳島大学国語国文学 第22号』, 2009, p.47

을 받는 수수동사의 특성상 그 사용법이 매우 복잡하게 다루어지는 표현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森田良行은 ‘て+수수표현’에 대해 화자의 성별 차이에 강조를 두어 명령, 의뢰표현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한 어형으로 ‘おあげ系’ ‘おくれ系’ ‘おもらい系’ ‘ください系’로 분류·설명하였다³⁾.

본고에서는 현대 동경어의 형성·확립⁴⁾ 메이지(明治)·다이쇼(大正) 시대에 초점을 두어 그 당시의 소설 속에 사용된 대화를 통하여 화자와 청자의 성별 및 상하관계를 분석하여 위에서 제시된 의뢰표현 가운데 ‘てくれ’ ‘てください’의 의뢰표현을 연구하고자 한다. 상하관계는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계층, 연령, 사회적 직위를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에 분석 작품으로는 메이지 10년대의『当世書生氣質』와 메이지 20년대의『浮雲』『夏木立』『多情多恨』, 메이지 30년대의『破戒』『坊っちゃん』, 메이지 40년대의『蒲団』『田舎教師』, 다이쇼 시대의『或る女』로 택하였다.

II. <くれ系>

다음은 분석 작품의 대화 속에 있는 ‘<くれ系>’를 이용한 의뢰표현을 어형별로 분류한 예이다. 각 인용문 뒤에는 작품의 첫 글자⁵⁾를 제시한 동시에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부등호로 명시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 대등관계는 ‘=’로, 손위와 손아래의 표식으로는 ‘(손위에 해당)>(손아래에 해당)’ 로 표시했다.

<화자가 여성인 경우>

- (1) 一緒に東京の方へ帰つて呉れ『破』여>남
- (2) それには乳母とも定子とも断然縁を切るから以後他人と思つてくれ。『或』여>여

3) 森田良行「苛風・潤一郎・春夫」『明治大正時代の敬語』 pp.205-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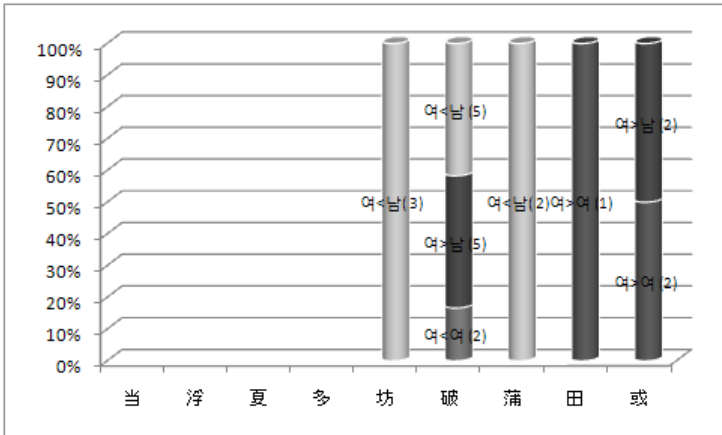
4) 松村明, 『江戸語東京語の研究』 東京堂, 1957, pp.86-103

5) 『当世書生氣質』는『当』, 『浮雲』는『浮』와 같이 표기한다.

<화자가 남성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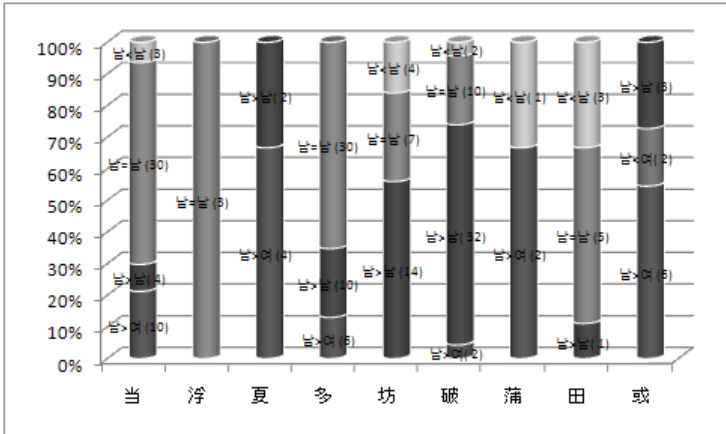
- (3) もう兄貴は居ねえ。是からは俺と婆さんと二人ぎりて、お前の噂をして楽しむんだ。考へて見て呉れよ、俺も子は無しサ—
—お前より外に便りにするものは無えのだから。『破』남>남
- (4) 冗談は措いてくれ。……おりゃ真剣でいっとるんだ。『或』남>여

[표 1] ‘くれ系’: 화자가 여성인 경우



‘くれ系’의 어형에 대한 여성화자의 사용례는 메이지 18년의『当世書生氣質』와 메이지 20년대의 작품인『浮雲』『夏木立』『多情多恨』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지30년대 이후의 작품인『坊っちゃん』『破戒』『蒲団』『田舎教師』과 다이쇼 시대의『或る女』에서는 그 사용례가 보였다. 상대는 주로 예(1)과 같이 손아래의 청자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예(2)과 같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상대가 손위였지만 ‘くれ系’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표 2] ‘くれ系’: 화자가 남성인 경우



화자가 남성인 경우, ‘くれ系’의 어형은 메이지 18년의 『当世書生氣質』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대등할 때 사용수가 많았다. 그 가운데 ‘くれたまえ’는 ‘くれ系’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메이지 18년의 『当世書生氣質』와 메이지 20년대의 작품인 『浮雲』 『多情多恨』에서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남성화자와 청자 간의 사용이 많았지만, 메이지30년 이후의 작품인 『坊っちゃん』 『破戒』에서는 대등한 관계의 남성화자와 남성청자에서의 사용수보다 손아래의 남성 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많았다.

‘くれ系’는 남성화자의 사용이 여성화자의 사용보다 더 많았고, 청자는 대등한 관계 및 손아래의 인물에 해당되었다.

Ⅲ. おくれ系

다음은 분석 작품의 대화 속에 있는 ‘おくれ系’를 이용한 의외표현을 어형별로 분류한 예이다. 각 인용문 뒤에는 작품의 첫 글자를 제시한 동시에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부등호로 명시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 대등관계는 ‘=’로, 손위와 손아래의 표식으로는 ‘(손위에 해당)>(손아래에 해당)’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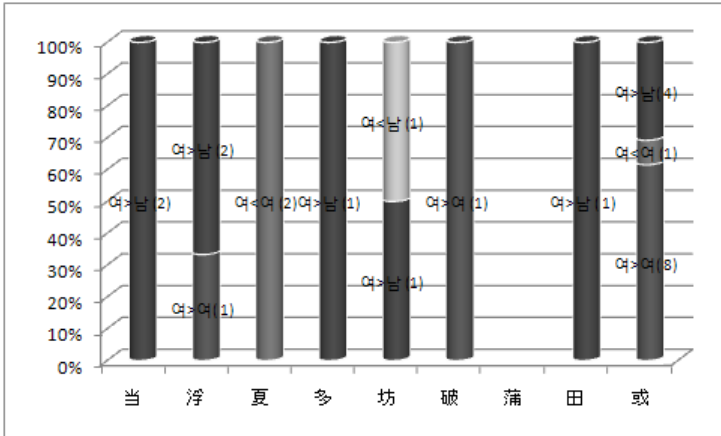
<화자가 여성인 경우>

- (5) 「それぢや、仕舞ツてからで宜いからネ、何時もの車屋へ往ツて、一人乗一艇逃へて来てお呉れ。浜町まで上下。」
『浮』 여>여
- (6) 「叔母さんよウ、叔母さんよウ、かへして御呉れよ、妾の雛唄をさア。さア活かして返して御呉れよウ」『夏』 여<여
- (7) お志保、確乎して居てお呉れよ、 『破』 여>여
- (8) 「愛さん貞ちゃん古藤さんがお帰りになるといけないから早く来ておとめ申しておくれ」『或』 여>여
- (9) 私が、先へ寄ツて苦勞させるのが可憐さうだから、為をおもツて言ツて遣りやアネ、文さん、マア聞いてお呉れ、斯うだ。『浮』 여>남
- (10) 「そう御苦勞よ。家に帰ったらね、きょうは帰りがおそくなるかもしれせんから、お嬢さんたちだけで校友会にいらっしゃいってそういっておくれ。それから横浜の近江屋——西洋小間物屋の近江屋が来たら、きょうこっちから出かけたからっていうようにならね」『或』 여>남

<화자가 남성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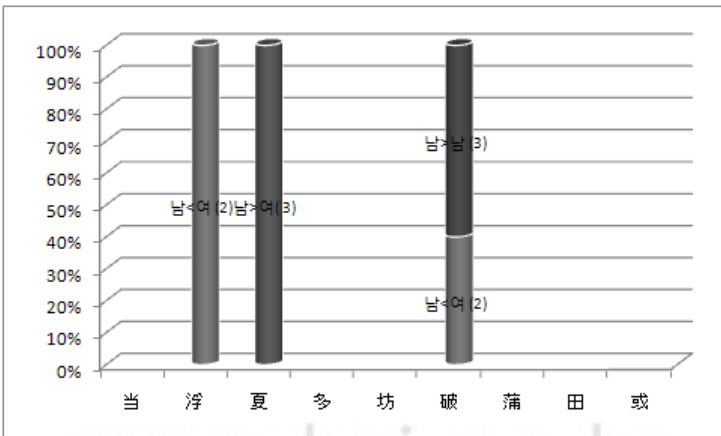
- (11) それを後面から見て居た己の心...此処だけは言悪いからこれを察しておくれ。『夏』 남<여
- (12) 日頃俺は彼奴に堅く言聞かせて置いたことがある。何卒丑松が帰つて来たら、忘れるな、と一言左様言つてお呉れ。
『破』 남>남
- (13) 「チヨイと此方へ来てお呉れツてば。」『浮』 남<여

[표 3] 'おくれ系': 화자가 여성인 경우



화자가 여성인 경우, 'おくれ系'의 어형은 다이쇼 시대의 『或る女』에서 그 사용례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많은 편이었다. 분석 작품 안에서 'おくれ系'는 손아래의 청자에게 사용된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예(6)(13)과 같이 가족이나 친척 간의 관계에서 손위의 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있었다.

[표 4] 'おくれ系': 화자가 남성인 경우



화자가 남성인 경우, ‘おくれ系’의 어형은 『浮雲』『夏木立』『破戒』에서 보였고, 이 때 예 (9) (10)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사용되었다.

‘おくれ系’는 여성화자의 사용이 남성화자의 사용보다 더 많았고, 상대는 손위의 청자부터 손아래의 청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V. おくれなさい系

다음은 분석 작품의 대화 속에 있는 ‘おくれなさい系’를 이용한 의뢰표현을 어형별로 분류한 예이다. 각 인용문 뒤에는 작품의 첫 글자를 제시한 동시에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관계를 부등호로 명시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 대등관계는 ‘=’로, 손위와 손아래의 표식으로는 ‘(손위에 해당)>(손아래에 해당)’로 표시했다.

(14) 慈母さん、今日から、私を下宿さしてお呉んなさいな。

『浮』여<여

(15) マア本田さん、聞いてお呉んなさい。真個に、彼児の錢遣ひの荒いのに困りますよ。『浮』여>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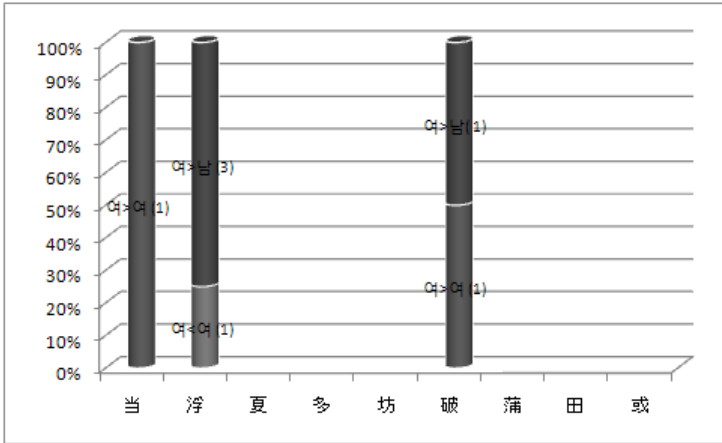
(16) 『音さん。四斗七升の何のと言はないで、何卒悉皆地親さんの方へ上げて了つて御呉なんしよや——私はもう些少も要りやせん。』『破』여>여

‘おくれなさい系’는 분석 대상 작품 속에서 메이지 18년의『当世書生氣質』, 메이지 20년의『浮雲』, 메이지 39년의『破戒』에서 사용된 예가 보였으며, 여성화자의 사용만 있었고⁶⁾, ‘お呉(く)ん—’이라는 표현 형태로 사용되었다. 상하관계를 보면, 예(14)와 같이 손위의 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있었지

6) 『坊っちゃん』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うらなり君は恐れ入った体裁でいえ構うておくれなさるな」라는 남성화자의 사용례가 있었으나, ‘てくれ’ ‘てください’의 어형을 다루는 관계로 분석 예로 제외시켰다.

만, 예 (15) (16)와 같이 손아래의 청자에게 사용하기도 했다.

[표 5] ‘おくねさい系’: 화자가 여성인 경우



V. ください系

다음은 분석 작품의 대화 속에 있는 ‘ください系’를 이용한 의뢰표현을 어형별로 분류한 예이다. 각 인용문 뒤에는 작품의 첫 글자를 제시한 동시에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부등호로 명시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 대등관계는 ‘=’로, 손위와 손아래의 표식으로는 ‘(손위에 해당)>(손아래에 해당)’ 로 표시했다.

<화자가 여성인 경우>

- (17) 母親さん、咽が潤いていけないから、お茶を一杯入れて下さいナ『浮』여<여
- (18) 先生、後生ですから、もう、少し待って下さい。『蒲』여<남
- (19) ここにいらっしゃって、あなた今すぐいらして呼んで来て下さいましな。会いたいなら会いたいようにする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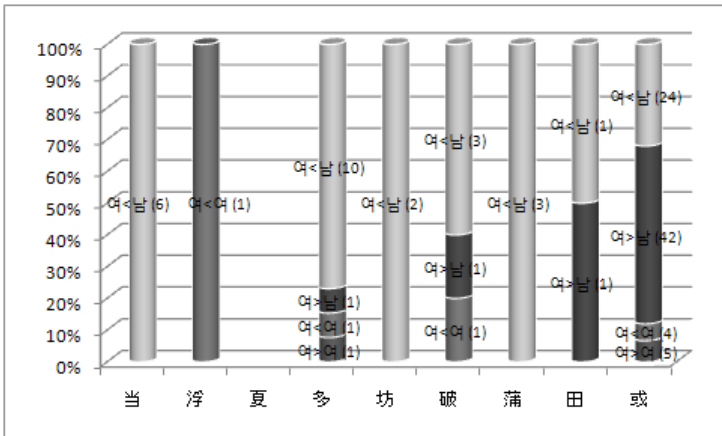
ようござんすわ『或』여>남

- (20) おじさんがお帰りにになったらよろしく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まし、葉子はどんな人間になり下がるかもしれませんって.....あなたどうぞおからだをお大事に。『或』여<여

<화자가 남성인 경우>

- (21) 「だれと指すと、その人の名誉に関係するから云えない。また判然と証拠のない事だから云とこちの落度になる。とにかく、せつかく君が来たもんだから、ここで失敗しちゃ僕等も君を呼んだ甲斐がない。どうか気を付けてくれたまえ」『坊』남=남
- (22) 阿爺さん、堪忍して下さい。『破』남<남
- (23) こっちのほうに来た時にはぜひ寄ってください。『田』남=남
- (24) かみさん——それでは先刻のものを茲へ出して下さい。『破』남>여
- (25) 姐さん、氷をブツカキにして持って来てくださいな。『田』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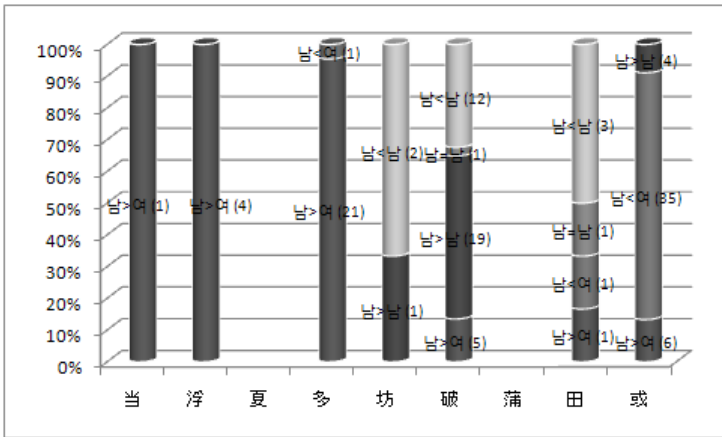
[표 6] ‘ください系’: 화자가 여성인 경우



화자가 여성인 경우, ‘ください系’는 분석 대상 작품 가운데 다이쇼 시대

의 『或る女』의 사용수가 많았다.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에 따른 사용례를 보면, 분석 대상 작품 가운데 메이지 시대의 작품에서는 손위의 청자에게 사용한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지만, 다이쇼 시대의 『或る女』에서는 손아래의 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많았다.

[표 7] ‘ください系’: 화자가 남성인 경우



화자가 남성인 경우, 화자가 여성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ください系’는 다이쇼 시대의 『或る女』에서의 사용례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용례 수가 많았다. 남성 화자를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에 따른 사용례를 보면 손아래의 청자에게 사용한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지만, 『或る女』에서는 손위의 여성 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보였다.

‘ください系’의 경우, 『当世書生氣質』 『或る女』에서는 여성화자의 사용이 남성화자의 사용보다 많았지만, 『多情多恨』 『破壊』에서는 남성화자의 사용이 여성화자의 사용보다 더 많았다. 상대는 손위의 청자부터 손아래의 청자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I. お～ください系

다음은 분석 작품의 대화 속에 있는 ‘お～ください系’를 이용한 의뢰 표현을 어형별로 분류한 예이다. 각 인용문 뒤에는 작품의 첫 글자를 제시한 동시에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부등호로 명시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 대등관계는 ‘=’로, 손위와 손아래의 표식으로는 ‘(손위에 해당)>(손아래에 해당)’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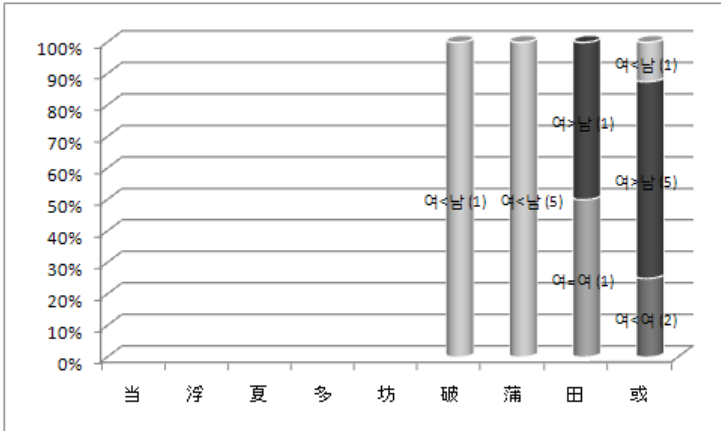
<화자가 여성인 경우>

- (26) どうか先生、この憐れなる女をお憐み下さいまし『蒲』여<남
 (27) 「まあ、どうぞおかけくださいまし……、おや雪さんもご
 いっしょに、……さア、雪さん、こっちにおはいらなさい
 ましよ」『田』여=여
 (28) 「それじゃ、どうぞお遊びにおいでくださいまし、毎日行っ
 たり来たりしていた方が急においでにならなくなると、あ
 れも淋しくってしかたがないとみえましてね……それに、
 ほかに仲のいいお友だちもないものですから……」『田』여>
 남
 (29) 「お座敷へと申すところですが、御氣さくにこちらでおくつ
 ろぎくださいまし……三間ともとしてはございますが」
 『或』여<여
 (30) なんとお礼を申していいか、そこはお察しくださいまし。
 『或』여>남

<화자가 남성인 경우>

- (31) まあ、御敷下さい。『破』남<남
 (32) それはぜひお延ばし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から……お医者
 さんもお医者さんだと思います『或』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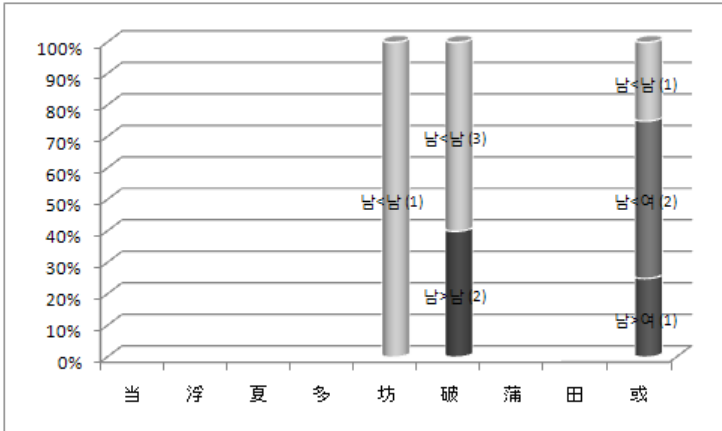
[표 8] ‘お~ください系’: 화자가 여성인 경우



화자가 여성인 경우, ‘お~ください系’는 분석대상의 작품가운데, 메이지 30년대 이후의 작품인『破戒』『蒲団』『田舎教師』『或る女』에서 사용례가 보였으며, 그 가운데 다이쇼 시대의 『或る女』에서의 사용수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많은 편이었다.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를 보면 『破戒』『蒲団』에서는 예(26) (29)과 같이 손위의 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나타났지만, 『田舎教師』『或る女』에서는 예 (28) (30)과 같이 손아래의 남성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보였다. 또, 『田舎教師』에서는 예 (27)와 같이 사회적으로 대등한 관계인 부모사이에서 사용된 예가 보였다.

화자가 남성인 경우, ‘お~ください系’는 분석대상의 작품가운데 메이지 30년대 이후 작품인『坊っちゃん』『破壊』『或る女』에서 사용례가 보였으며, 그 가운데 다이쇼 시대의 『或る女』에서의 사용례가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볼 때 사용 수가 다소 많은 편이었다. 남성 화자를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를 보면 예 (31)(32)와 같이 손위의 청자에게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표 9] ‘お~ください系’: 화자가 남성인 경우



‘お~ください系’는 분석대상 작품 가운데 메이지20년대까지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메이지 3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는 그 사용례가 보였다. 성차에 따른 용례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화자 쪽이 남성화자 보다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청자는 주로 손위의 인물에 해당되었다.

VII.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

다음은 분석 작품의 대화 속에 있는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를 이용한 의뢰표현을 어형별로 분류한 예이다. 각 인용문 뒤에는 작품의 첫 글자를 제시한 동시에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부등호로 명시했다. 상하관계에 있어서 대등관계는 ‘=’로, 손위와 손아래의 표식으로는 ‘(손위에 해당)>(손아래에 해당)’로 표시했다.

<화자가 여성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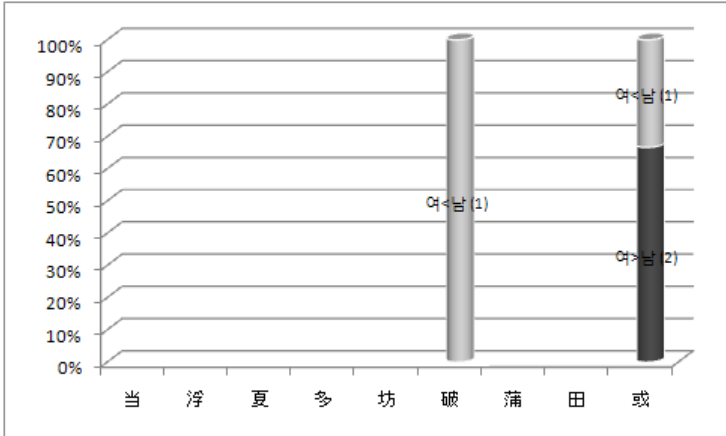
- (33) 『瀬川さん。そんなら準備して御出なすつて下さい。今直に御飯にいたしますから。是から御出掛なさるといふのに、

生憎何にも無くて御気の毒ですねえ——塩鮭でも焼いて上げませうか。』『破』여<남

<화자가 남성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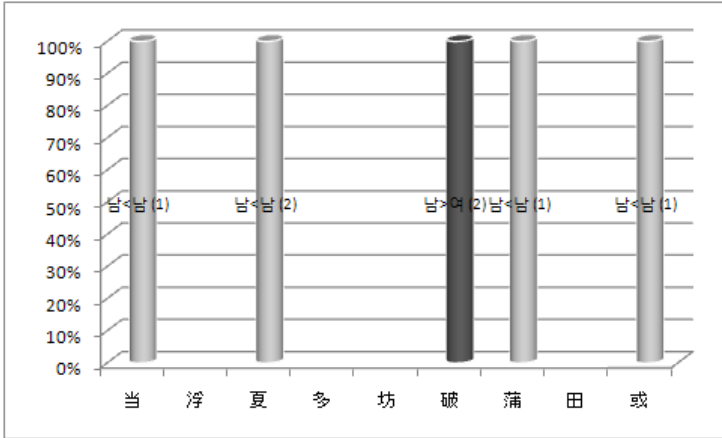
- (34) 『貴方(あなた)も一つ御上りなすつて下さい。』『破』남<여
- (35) 厳父親も三芳さんも、御安心なすつて下さいまし『当』남<남
- (36) 『さしておきましたよ。きれいになってるはずですが、御覧なすつてください。わたしは今ちょっと』『或』남<남

[표 10]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 화자가 여성인 경우



화자가 여성인 경우,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의 용례 수는 분석대상의 작품 속에서 소수에 불과했으며, 분석대상의 작품가운데 메이지 30년대의 『破壊』와 다이쇼시대의 『或る女』에서만 보였다. 여성 화자를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에 따른 사용례를 보면 상대는 예 (33)과 같이 모두 손위의 청자에 해당되었다.

[표 11]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 화자가 남성인 경우



화자가 남성인 경우,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는 화자가 여성일 때 보다는 사용례가 다소 많긴 했지만, 분석대상의 작품 속에서의 사용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남성 화자를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에 따른 사용례를 보면 상대는 대부분 예 (35)(36)와 같이 손위의 남자였으나, 『破戒』에서는 예(34)와 같이 손아래의 여성 청자이지만 상대측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고 있을 때에 사용한 예가 보였다.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는 분석 대상 작품 속에서 남성화자의 사용수가 여성화자의 사용수보다 더 많았고, 청자는 주로 손위의 인물에게 사용되었다.

다음의 표는 각 작품 속에 나타난 ‘てくれ’ ‘てください’의 어형과 사용수를 성별 및 상하관계로 나누어 조사한 것으로, ‘くれ系’는 A, ‘おくれ系’는 B, ‘おくれなさい系’는 C, ‘ください系’는 D, ‘お~ください系’는 E,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는 F로 표기했다.

[표 12]

	当	浮	夏	多	坊	破	蒲	田	或
여>여	C-1	B-1		D-1		B-1 C-1		A-1	A-2 B-8 D-5
여=여									
여<여		C-1 D-1	B-2	D-1		A-2 D-1			B-1 D-4 E-2
여>남	B-2	B-2 C-3		B-1 D-1	B-1	A-5 C-1 D-1		B-1 D-1 E-1	A-2 B-4 D-42 E-5 F-2
여=남									
여<남	D-6			D-10	A-3 B-1 D-2	A-5 D-3 E-1 F-1	A-2 D-3 E-5	D-1	D-24 E-1 F-1
남>여	A-10 D-1	D-4	A-4 B-3	A-6 D-21		A-2 D-5 F-2	A-2	D-1	A-6 D-6 E-1
남=여									
남<여		B-2		D-1		B-2		D-1	A-2 D-35 E-2
남>남	A-4		A-2	A-10	A-14 D-1	A-32 B-3 D-19 E-2		A-1	A-3 D-4
남=남	A-30	A-3		A-30	A-7	A-10 D-1		A-5 D-1	
남<남	A-3 F-1		F-2		A-4 D-2 E-1	A-2 D-12 E-3	A-1 F-1	A-3 D-3	E-1 F-1

[A:くれ系 B:おくれ系 C:おくれなさい系 D:ください系 E:お~ください系 F: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

여성화자와 여성청자 사이에서 나타난 ‘てくれ’ ‘てください’의 어형에는 ‘おくれ系’ ‘おくれなさい系’ ‘ください系’ ‘お~ください系’가 있었다. 손위의 여성화자가 손아래의 여성청자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当世書生氣質』에서는 ‘おくれなさい系’, 『浮雲』에서는 ‘おくれ系’, 『多情多恨』에서는 ‘ください系’가 보였지만, 『或る女』에서는 ‘くれ系’

‘おくれ系’ ‘ください系’ 등이 보였다. 손아래의 여성화자가 손위의 여성청자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浮雲』에서는 ‘おくれなさい系’ ‘ください系’, 『夏木立』에서는 ‘おくれ系’, 『多情多恨』에서는 ‘ください系’가 보였고, 『或る女』에서는 ‘おくれ系’ ‘ください系’ 이외에 ‘お~ください系’ 등이 보였다.

여성화자와 남성청자 사이에서 나타난 ‘てくれ’ ‘てください’의 어형에는 ‘おくれ系’ ‘おくれなさい系’ ‘ください系’ ‘お~ください系’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가 있었다. 손위의 여성화자가 손아래의 남성청자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当世書生氣質』에서는 ‘おくれ系’, 『浮雲』에서는 ‘おくれ系’ ‘おくれなさる系’, 『多情多恨』에서는 ‘おくれ系’ ‘ください系’가 보였고, 『或る女』에서는 ‘くれ系’ ‘おくれ系’ ‘ください系’ ‘お~ください系’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 등 다양한 어형이 보였다. 손아래의 여성화자가 손위의 남성청자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当世書生氣質』 『多情多恨』에서는 ‘ください系’, 『破戒』 『或る女』에서는 ‘おくれ系’ ‘ください系’ 이외에 ‘お~ください系’ 등이 보였다.

남성화자와 여성청자 사이에서 나타난 ‘てくれ’ ‘てください’의 어형에는 ‘くれ系’ ‘おくれ系’ ‘ください系’ ‘お~ください系’가 있었다. 손위의 남성화자가 손아래의 여성청자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当世書生氣質』에서는 ‘くれ系’, 『浮雲』에서는 ‘ください系’, 『夏木立』에서는 ‘くれ系’ ‘おくれ系’, 『多情多恨』에서는 ‘くれ系’ ‘ください系’가 주를 이루었고, 『破戒』에서는 ‘くれ系’ ‘ください系’ ‘お~ください系’, 『或る女』에서는 ‘くれ系’ ‘ください系’ ‘お~ください系’ 등이 보였다. 손아래의 남성화자가 손위의 여성청자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浮雲』에서는 ‘おくれ系’, 『多情多恨』에서는 ‘ください系’가 보였고, 『或る女』에서는 ‘お~ください系’가 주로 사용되었음을 보였다.

남성화자와 남성청자 사이에서 나타난 ‘てくれ’ ‘てください’의 어형에는 ‘くれ系’ ‘おくれなさい系’ ‘ください系’ ‘お~ください系’가 있었다. 손위의 남성화자가 손아래의 남성청자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当世書生氣質』 『浮雲』 『多情多恨』에서는 ‘くれ系’, 『破戒』에서는 ‘くれ

系’ ‘おくれ系’ ‘ください系’가 보였다. 대등한 관계에서의 남성화자와 남성청자인 경우는 ‘くれ系’의 사용이 일반적이었다. 손아래의 남성화자가 손위의 남성청자에게 부탁하거나 의뢰하는 경우『当世書生氣質』에서는 ‘くれ系’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 『夏木立』에서는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가 보였으며, 『坊っちゃん』 『破戒』에서는 ‘ください系’ ‘お~ください系’가 보였고, 『或る女』에서는 ‘お~ください系’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가 보였다.

VIII. 맺음말

메이지·다이쇼 시대의 소설 작품 중에서 사용된 ‘てくれ’ ‘てください’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 의뢰표현은 다음과 같았다.

수수동사의 명령형에 ‘お’가 접속된 형태를 보면『当世書生氣質』에서는 ‘おくれ系’ ‘おくれなさい系’의 어형이 많았던 것에 비해, 『或る女』에서는 ‘お~ください系’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くれ系’는 남성화자의 사용이 여성화자의 사용보다 더 많았다. 여성화자의 사용례는 메이지 30년 이후의 작품에서부터 보였다. 남성화자의 경우, 대등한 관계의 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많았다가 손아래의 청자에게 사용한 예가 증가되었다. ‘おくれ系’는 여성화자의 사용이 남성화자의 사용보다 많았고, 청자는 손위, 손아래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おくれなさい系’는 여성화자의 사용이 돋보였으며, ‘おくん—’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ください系’는『当世書生氣質』 『或る女』에서 여성화자의 사용이 남성화자의 사용보다 많았지만, 『多情多恨』 『破壊』에서 남성화자의 사용이 여성화자의 사용보다 더 많았다. 상대는 손위의 청자부터 손아래의 청자까지 폭넓게 사용되었다. ‘お~ください系’는 메이지 30년 이후의 작품에서 사용례가 보였고, 성차에 따른 용례 수는 여성화자 쪽이 남성화자 보다 다소 많았고, 청자는 주로 손위의 인물에 해당되었다. ‘お~なさってください系’는 남성화자 쪽이 여성화자 보다 사용수가 다소 많았고, 청자는 주로 손위의 인물

에 해당되었다.

❖ 참고 문헌

- 大江三郎, 『日英語の比較研究—主觀性をめぐって—』, 南雲堂, 1975.
- 尾形佳助, 「(て)ください」の文法, 神戸松蔭女子学院大学, 文林30, 1996.
- 娛津敬一郎, 「日本語の授受動詞構文」-英語・朝鮮語と比較して-, 『人文學報』
132 東京都立大学, 1979.
- 尾崎喜光, 「女性専用の文末形式のいま」, 『女性の言葉・職場編』, ひつじ書房,
1997.
- _____, 「依頼・勧めに対する断りにおける配慮の表現」, 『言語行動における
「配慮」の諸相』, 国立国語研究所, 2006.
- 金久保紀子, 「待遇表現としての授受表現」, 『日本文化研究』 第四号, 1993.
- 国広哲弥, 『日英語比較講座第5巻文化と社会』, 大修館書店, 1982.
- 佐藤里美, 「してくれ・してください」, 『ことばの科学5』, むぎ書房, 1992.
- 清水勇吉, 「依頼表現に見るポライトネス—性差のかかわりを中心に—」,
『徳島大学国語国文学第22号』, 2009.
- 鈴木重幸, 『日本語文法形体論』, むぎ書房, 1972.
- 沼田善子, 「授受動詞文と対人認知」, 日本語学, 『明治書院』, 1999.
- 松村明, 『近代の国語-江戸から現代へ-』, 桜風社, 1977.
- 前田広幸, 「「~てください」と「お~ください」」, 『日本語学』 9, 1990.
- _____, 「日本語敬語体系における四つの非対象性について -その背景にある
語用論的原理および競合する原理間の優先関係-」 『大阪女子大学国文学
学科紀要女子大学国文篇』, 1997.
- 松村明 『江戸語東京語の研究』, 東京堂, 1957.

❖ ABSTRACT

Expressions of requests using give and receive verbs
in the era of Meiji and Taisho

Yang, JungSoon

Request expressions can be defined as expressions that demand or ask the other person to do certain movements. There are direct request expressions that ask the other person to do certain movements directly and indirect request expressions that ask the other person to do certain movements by describing the speaker's condition.

The study analyzed gender and hierarchy of speakers and listeners who used 'tekure' and 'tekudasai' in dialog examples of the Meiji Period and the Taisho Period. In those periods, the modern Tokyo dialect was formed and established. 『Toseishoseikatagi』 in Meiji 10s, 『Ukigumo』 『Natsukodachi』 『Tajotakon』 in Meiji 20s, 『Hakai』 『Botchan』 in Meiji 30s, 『Huton』 『Inakakyoshi』 in Meiji 40s and 『Aruonna』 in the Taisho Period were analyzed for the study.

'kure' was used more by male speakers than female speakers. Examples by female speakers were shown on the novels after Meiji 30s. In case of male speakers, they often used it to listeners with an equitable relationship at 『Toseishoseikatagi』 in Meiji 10s but they often used it to younger listeners at 『Hakai』 in Meiji 30s. 'okure' was used more by female speakers than male speakers. Listeners were varied from older ones to younger ones. In case of female speakers, 'okure' was used more often at 『Aruonna』 in the Taisho Period than the other novels. In case of male speakers, 'okure' was used only at 『Ukigumo』 『Natsukodachi』 and 『Hakai』. 'Okurenasai' was used outstandingly by female speakers on the form of 'okun__'.

In case of 'kudasai', female speakers used it more than male speakers at 『Toseishoseikatagi』 and 『Aruonna』 but male speakers used it more than female

speakers at 『Tajotakon』and 『Hakai』. Listeners were varied from older ones to younger ones. ‘o~kudasai’ was not shown until Meiji 20s but shown after Meiji 30s among the analyzed novels. According to gender, it was used a little bit more often by female speakers than male speakers. According to hierarchy, listeners were usually older than speakers. ‘o~nasatekudasai’ was used more often by male speakers than female speakers. Listeners were also usually older than speakers.

Key Words

의뢰표현, 대우표현, 화자의 성별에 따른 표현, 인간관계, 수수동사
Expressions of requests, Expression of politeness, Gendered language,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Give and Receive Verbs

논문접수일: 2012. 11. 10.

심사완료일: 2012. 12. 07.

게재확정일: 2012. 12. 21.